

이익 사이클로 살펴보는 2023 년

2022/ 11/ 14

Strategist

곽병열

(2009-7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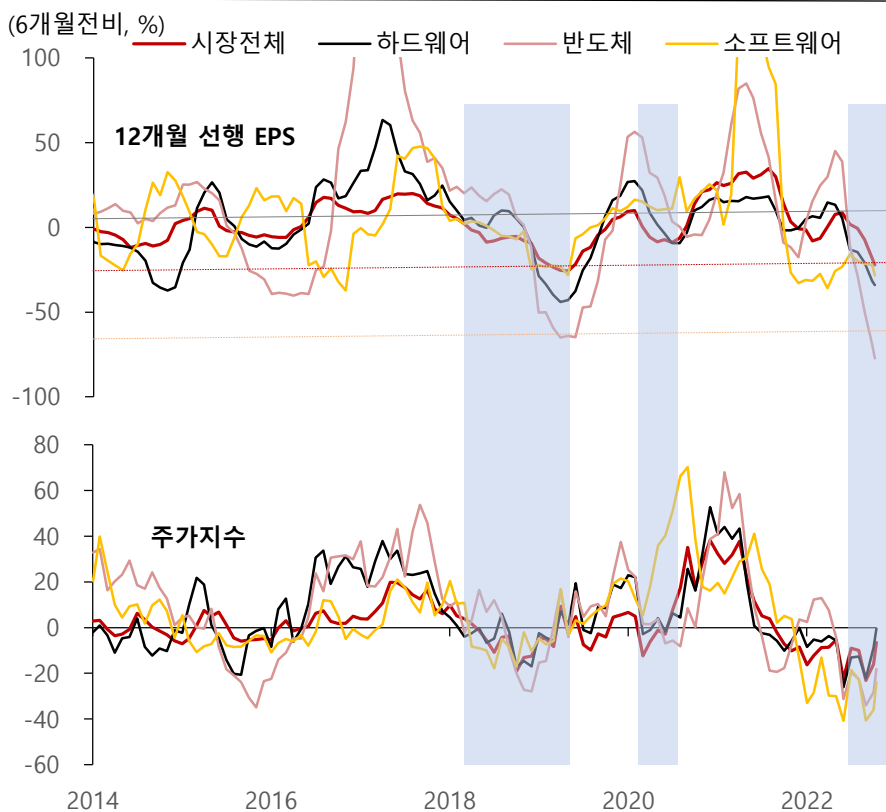
brkwak@leading.co.kr

■ 업종별 기업이익 사이클 점검

업종별 기업이익 사이클을 도출하고자 12 개월 예상 EPS 의 6 개월전 대비 증감율을 살펴봤음. 시장전체 기준으로 2014 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이익 하향조정이 이뤄졌고, 특히 IT 업종은 시장대비 하락 진폭은 크게 나타났고 이미 역사적 저점수준까지 감익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국내증시에서는 이익 사이클 저점 접근 시 주가반등은 선행적으로 이뤄졌는데, 기업이익의 하향조정 마무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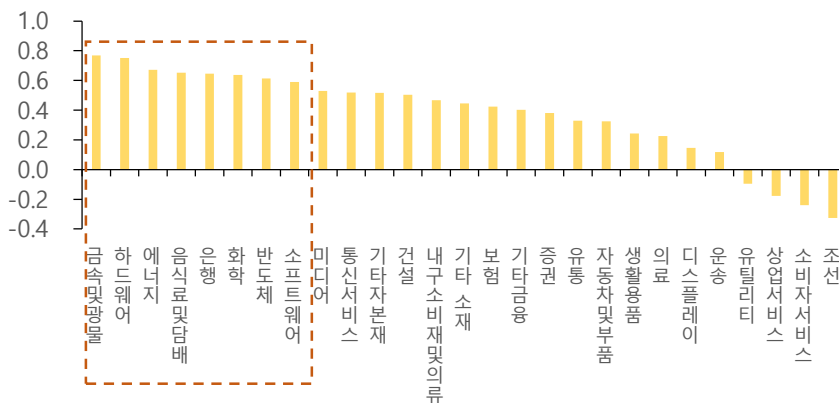
<그림 1> 기업이익 사이클 상 바닥권 진입 가능성(시장전체 및 IT 업종)



시장전체 이익 사이클과 동조화 경향이 강한 업종(2014 년 이후 상관계수 은 금속및광물, 하드웨어, 에너지, 음식료및담배, 은행, 화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임. 해당 업종은 진행 중인 기업이익 하향조정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데, IT 업종(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경우 역사적 저점 및 시장과의 괴리를 통해 바닥권에 상당히 근접했을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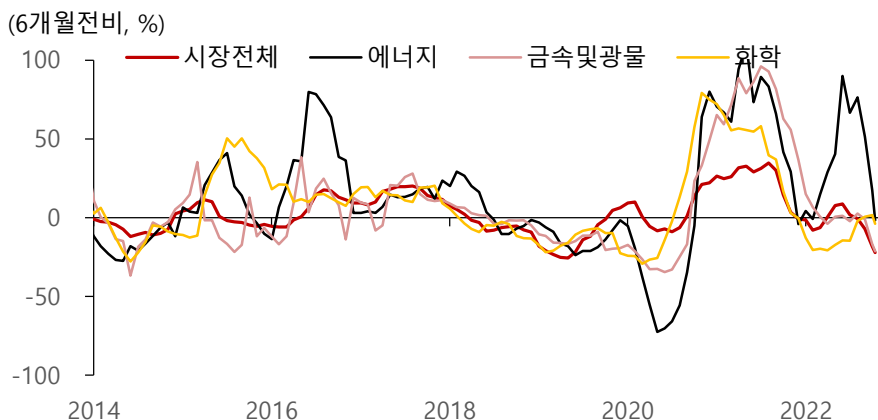
한편 에너지, 금속및광물, 화학 등 시장전체와의 이익 동조화 경향이 강한 시크리컬 업종의 경우 아직 시장보다 하향조정 속도는 다소 완만히 진행 중임. 또한 은행, 음식료및담배의 경우 이익사이클의 진폭은 여타 경기민감주보다는 완만한 편이며 역시 시장대비 감익 속도는 제한적인 상황임

<그림 2> 시장전체 기업이익(6개월전비)과 업종 간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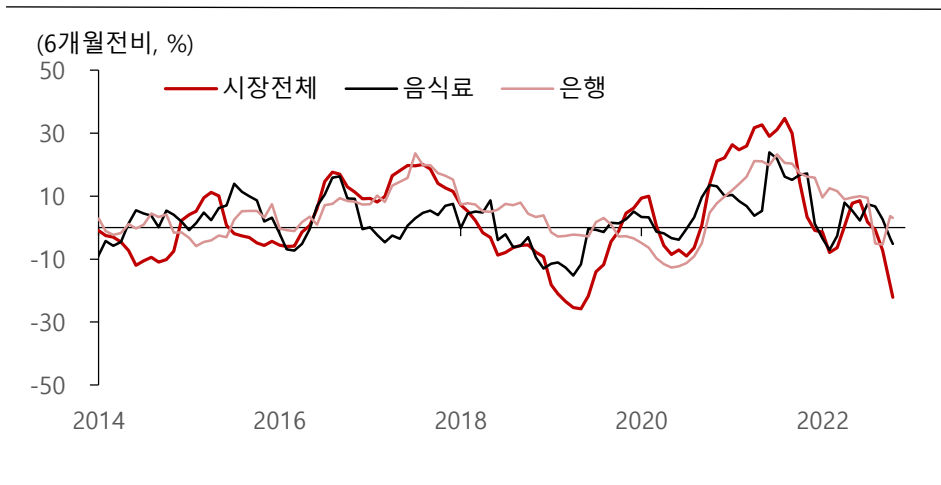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주: 2014 년 이후 상관계수임

<그림 3> 시크리컬 업종은 시장과의 동조화 시 추가조정 가능성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그림 4> 음식료 및 은행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향조정 중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이익 사이클의 저점 접근 시 향후 'Bottom Out'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2014 년 이후 이익 저점에 근접 중인 종목군을 살펴봤음. 해당 종목군의 경우 최근 주가반등으로 저평가 매력은 일부 약화되었으나 이익 저점통과 이후 Bottom Out 시 고평가 논란을 점차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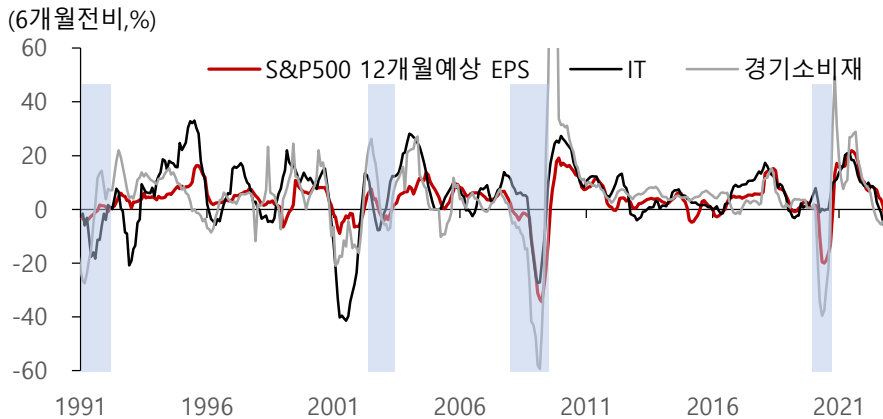
<그림 5>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이익사이클 상 저점에 근접 중인 종목군

이익사이클	해당종목
최저수준	SK 하이닉스, LG, SKC, 한국금융지주
평균이하~최저점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POSCO 홀딩스, KB 금융, SK 이노베이션, LG 전자,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엔씨소프트, LG 생활건강, KT, LG 이노텍, 아모레퍼시픽

자료: 리딩투자증권

참고로 미국 S&P500 기업군의 이익사이클도 살펴봤는데,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이익은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비 미국 핵심기업의 이익하향 조정은 더디게 진행된 중인 것으로 파악됨(그림 6 참조).

<그림 6> S&P500 기업의 이익사이클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주: 음영은 미국경제의 침체기임

■ 결 론

- ▷ 시장전체 이익 사이클 상 2014 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이익 하향조정이 이뤄짐
- ▷ 특히 IT 업종은 시장대비 하락 진폭은 크게 나타났고 이미 역사적 저점까지 감익 진행
: 한국증시는 이익사이클 저점 접근 시 주가 반등은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경향
- ▷ 반면 이익 동조화 경향이 큰 '시크리컬-은행-음식료' 경우 저점과 괴리가 있는 상황임
- ▷ 현 이익사이클 저점 접근 업종(IT 등) 및 시가총액 상위종목군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